

금강산 관광 10년의 의미

김 영 윤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08년 11월 18일로 꼭 10년이 되었다. 십년 전 뱃길로 이어진 금강산 관광은 희미하게나마 북한이라는 동토를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창문이었다. 뱃간에 기대어 너무나 못 살고 어려운 모습의 북한 동포를 보며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그 사이 금강산 관광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했다. 육로관광(2003년)이 시작된 후 우리는 북한군이 지키는 비무장 지대를 통과 하면서 긴장을 느끼는 한편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느꼈다.

금강산 관광이 우리를 북녘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 60여 년간 분단된 채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가 되도록 하지는 못했다. 특히 북녘주민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그 지리적 한계로 인해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의 금강산 관광은 지역 경제에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금강산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만 해도 부지기수다. 여행사 대리점 120개, 그 중에서 25개 업체는 금강산이나 개성관광만을 전문으로 한다. 속초나 고성군 지역 숙박업체, 음식점, 주유소 등 90개 이상은 금강산 관광만 바라 보는 소상인 들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금강산으로 자재 납품만 하는 업체만 해도 167개나 된다. 현대아산을 비롯, 금강산 지역에 직접 투자한 회사만 해도 34개나 된다. 현대아산을 제외한 33개사가 지금까지 총 1,269억 원을 투자했다. 현대아산을 포함하면 4,300억 원이 넘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7월 11일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현대아산의 영업은 30% 이상이 금강산에 의존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 누적 손실만 해도 840억 원이 넘었다. 금강산 현지에서 고용된 북한 기능직 1,200여명, 재중동포 600여명,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250여명, 그리고 남북에서 직간접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200명 등 총 2,250명 대부분은 일자리를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찮다. 2007년 한 해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34만 8263명이었다. 관광 대가로 북한은 총 2,038만 달러를 받았다. 2008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9만 700명이 방문, 1,074만 달러의 관광 대가를 지불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56.3달러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8년 하반기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 북한은 약 1,126만 달러(약 152억 원 정도)를 손해 본 것이다. 북한 경제 규모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을 증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관광을 통한 남북협력의 증진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삶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해로관광 때문에 균형 시설을 옹기

고, 육로관광 때문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한 것만도 큰 변화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직결된다. 금강산 관광은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위기에 처한 경제환경을 호전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상쇄되기도 했다.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 당시에도 지속된 사업이 금강산 관광이다. 결국 남북한 간 문화와 정서의 동질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금강산 사업이다.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과잉대응 때문에 중단되었기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은 금강산을 방문하거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을 상봉하려는 희망을 제한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됐으나 준공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생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고령이산가족 상봉 희망자들에게는 큰 좌절이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 경색관계가 풀려야 된다. 어느 편이라도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북한도 남한이 바뀌지 않으면 관광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 총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대남 비방 중지, 대북 뼈라 살포 중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10·4선언과 6·15선언의 이행 등을 포괄하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남북관계는 대결만 있고, 군사적인 긴장으로 치달을 뿐이다. 총체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 수 있는 대화가 시급하다.

